

# 사우디아라비아 인프라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5월 1~3주)

(단위: USD\$)

## □ 정책 및 시장 동향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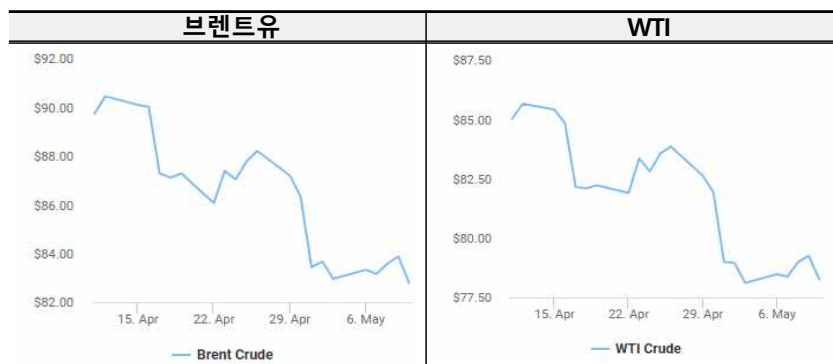
### ① 환율 및 기준금리 추이

구분	내용	비고
환율	1 USD = 3.75 SAR (Peg system)	(2024.5.6.) Saudi Central Bank (SAMA)
기준금리	6.0 % (전월대비 동일)	(2023.7.26.) Saudi Central Bank (SAMA)

-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우디 리얄화의 가치가 달러화 가치에 연동되는 달러화 페그제(peg system)를 유지하고 있어 미국의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금리 조정으로 리얄화의 통화가치 유지
- 사우디 중앙은행(Saudi Central Bank: SAMA)은 2023.7.26.일자로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Repo Rate를 0.25%p 인상했으며, 이후 미발표 유지중

### ② 국제유가 동향

구분	유가	변동 (전월대비)	비고
유가	브렌트유	82.79	USD/bbl
	WTI	78.26	



< 자료: Oilprice.com (2024.5.12.) >

구분	4.29	4.30	5.1	5.2	5.3	5.6	5.7	5.8	5.9	5.10
Brent	87.20	86.33	83.44	83.67	82.96	83.33	83.16	83.58	83.90	82.79
WTI	82.63	81.93	79.00	78.95	78.11	78.48	78.38	78.99	79.40	78.26

※ 기준: Brent (6,7월 계약분), WTI (6월 선적분)

- 4월 동안 유가는 큰 변동성을 보인 바 주요인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이외 중동지역 및 우크라이나 분쟁, OPEC+의 공급 감축 유지 등은 유가를 지지한 반면, 미국의 금리정책 및 다소 침체된 국제 연료시장의 현 상황 등이 유가 하락의 압력으로 작용함
- 5월 1주는 Brent 6.8%, WTI 6.4%의 하락세를 보이며, 금년 들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함
  - (수요 원인) 미국 경제의 불안정성 수요 압박으로 작용, 가자지구 휴전협상 전망 등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 완화
  - (공급 원인) OPEC+ 감산 지속 예상(러시아 원유 최대 수입국이 중국에서 인도로 변경)
- 5월 2주는 이스라엘-하마스간 협상 정체와 5.8일에 美원유 재고량 감소 발표(EIA), 유가의 테크니컬 요소로 인해 현상을 유지하다 5.10일 시장의 펀더멘털에 대한 불확실성이 강화되면서 하락함
  - 국제 석유타레이더사들은 이스라엘-하마스간 전쟁과 홍해 선박 물류 교란으로 올해 초 대비 국제유가가 약 10% 상승하였으나, 이스라엘-하마스간 협상이 타결될 경우, 유가의 정치지리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약 \$7)에서 \$2-\$3 정도의 하락이 가능하다고 예측
  - 시장이 OPEC+ 산유국의 공급 동향에 주목하는 상황에서, 6월 초 OPEC+ 회의(감산 연장 여부 결정)를 앞둔 현 시점에서 러시아는 이미 목표량을 초과해 생산 중인 것으로 나타남
- 여전히 원유 소비는 강한 상황이므로 OPEC 산유국들은 수요 감소가 아닌 지속 증가 추세에 있는 non-OPEC의 공급 상황 주목

### ③ 시장 동향

- **네옴, 금융권 초청 쇼앤텔(Show-and-Tell) 행사 개최** (Bloomberg, 4.23)
  - 네옴 개발사들이 새로운 형태의 펀딩을 지속 추진함에 따라 4월 4째 주에 수백명의 금융권 인사들을 네옴으로 초청함
  - 네옴 CEO는 정부 인사들과 함께 금융계 임원들을 초청하여 추진중인 더 라인의 주요 진행상황을 공개할 예정임
  -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기존에 네옴에서 뉴욕과 런던에서 보여줬던 가상 현실 영상이 아닌 네옴에서 실제로 진행중인 현실을 보여줌으로써 금융권의 관심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함
  - 일부 금융권에서는 아직 프로젝트에 대하여 사우디에서 정부의 보증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금융권에서 네옴에 대한 대규모 대출을 주저해왔다는 분석도 있음.
  - 지금까지 네옴 펀딩의 대부분은 PIF의 자산 출자로 이루어졌으며, 최근 현지화 채권 판매를 위하여 HSBC Holdings Plc, 알라지뱅크, 사우디내셔널뱅크 등을 통해 관련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됨
  - 네옴은 최근 자국 금융권들로부터 100억 리얄의 대출(loan)을 확보했으며, 프로젝트 개발사들은 신달라섬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30억 리얄의 대출도 파이낸싱한 바 있음
  - 한편, 사우디는 비전 2030 계획의 일부는 해외투자 유치를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예전부터 언급해왔으며, 2030년까지 매년 1,000억 불 이상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기대하고 있음. 이는 지금까지 유치한 투자보다 약 3배 더 큰 규모임
  - 한편, 네옴 경영진은 최근 잠재적 투자자를 만나기 위해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쇼케이스를 개최했으며, 서울, 워싱턴 DC, 마이애미, 파리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행사를 개최함
  - 한편, 이번 금융권 초청 행사는 여러 대규모 금융권을 동시에 초청하는 최초의 행사로 과거 단일 금융권을 소규모로 초청한 것과는 대조적임
  - 최근 네옴은 이틀간 100개사 이상의 건설사들을 초청했는데, 현재 14만명의 건설 근로자가 네옴 프로젝트에 참여중이며 내년까지 20만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함

- **PIF, BlackRock과 투자 플랫폼 MOU 체결** (MEED, 5.2)
  - BlackRock Saudi Arabia이 PIF와 리야드에서 다자산 투자 플랫폼을 구축하는 MOU를 체결함
  - 이 플랫폼은 PIF의 50억불 투자에 의해 양사 간 합의된 마일스톤 달성에 따라 이루어질 예정임
  - BRIM(BlackRock Riyadh Investment Management)는 다양한 자산 계층의 투자 전략으로 로컬 포트폴리오 관리팀의 관리와 BlackRock의 글로벌 자산관리 플랫폼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BRIM은 현지 채용 및 숙련된 투자 전문가 배치를 통해 인프라 지원과 투자 연구 능력 향상을 위해 석사 프로그램 개설, PIF 아카데미와 BlackRock 교육 아카데미 간의 파트너십 구축, 업계 교육 및 개발 행사 등을 포함하여 투자할 계획임
  - BlackRock CEO는 BlackRock의 핵심기여 중 하나가 운영하는 국가에서 자본 시장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라 하며, PIF와 수년간 발전시켜 온 깊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사우디 최초의 국제 투자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힘
- **전년 대비 1분기 재정적자 4배 증가** (AGBI, 5.6)
  - 사우디는 금년 1분기에 124억 리얄(약 33억불)의 예산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29.2억 리얄(약 7.8억불) 예산 적자 대비 약 4배 큰 규모로 일부 기가 프로젝트의 자금지원에 대한 의구심을 일으킴
  - 재무부 분기별 예산 검토에 따르면, 금년 전체 적자는 790억 리얄(약 190억불)로 추정됨
  - 금년 1분기 총 수익은 2,934억 리얄로 전년 2,809억 리얄보다 4% 증가했지만, 지출은 3,058억 리얄로 8% 증가함
  - 전년 동기 대비 석유 수익은 2%, 비석유 수익이 9% 증가했으며, 보조금 37%, 사회적 편익 24%, 비금융자산 비용은 33% 증가함
  - 사우디의 1분기 기준 총 부채는 1.1조 리얄이며, 이 중 4,500억 리얄은 대외 부채임
  - 사우디 경제는 정부가 글로벌 유가를 높이기 위해 석유 감산정책을

실행한 후인 지난해부터 0.8% 위축되었음

- 정부는 대규모 경제 전환 계획의 핵심인 기가 프로젝트의 일부 지연을 초래하면서 3년간의 예산 적자를 예측하고 있음
- 지난 5.6일에 발표된 Purchasing Managers' Index 조사에 따르면, 사우디 예산 적자와 GDP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의 비석유 민간 부문은 2분기를 긍정적으로 시작함
- 리야드뱅크 이코노미스트는 비석유 민간 부문의 상승세는 비석유 GDP의 급등을 암시하며, 4.5% 선을 넘길 것으로 추정하고, 현재 사우디는 신규 주문과 재고 확대로 시장 내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함

#### ○ MBS, 사우디 엑스포 2030 준비 논의<sup>(MEED, 5.3)</sup>

- MBS 왕세자는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BIE) 사무총장과 2030 엑스포 개최를 위한 리야드 준비에 대해 면담을 가졌으며, PIF 총재도 동 자리에 참석함.
- 2023.11월 사우디아라비아는 BIE 회원국의 72% 득표로 2030년 세계 엑스포 개최지로 선정됨
- 지난해 6.20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172차 BIE 총회에서 리야드는 2030 엑스포에 78억불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사우디 관계자들은 기술 지원, 전시관 건설, 유지 관리, 기타 서비스를 포함하는 3.53억불 패키지를 통해 100개 참가국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함
- 또한, Royal Commission for Riyadh City (RCRC)는 엑스포 부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공개하고, 행사장은 킹 살만 국제공항 인근에 개발될 예정이며 곧 완공될 리야드 메트로와와 연결될 것이며, 4천만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아올 것이라 언급함
- 공개된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226개의 구형으로 배열된 파빌리온으로 구성되어 몰입감 있는 글로벌 경험과 혼합된 문화를 제공할 전망

#### ○ Aramco, 1분기 실적 발표<sup>(MEED, 5.7)</sup>

- 아람코는 2024년 1분기 순이익이 273억불이라고 발표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순이익이었던 319억불에 비해 약 14.5% 감소한 수치임
-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336억불로 전년대비 15% 감소, 잉여 현금흐름은 228억불로 전년대비 26% 감소, 조금조달비율은 2023년 말 -6.3%

에서 3.31일 기준 -3.8%로 감소함

- 한편, 이와 별도로 금년 1분기 기본 배당 203억불과 2분기 지급 예정인 4차 실적 연계 배당 108억불을 발표하면서 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확대할 예정임
- 아람코 측은 벤처캐피탈 펀딩을 75억 불로 두 배 이상 증액하여, 디지털 및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 신기술에 대한 자금조달 능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
- 이에 아람코 CEO는 1분기 실적에 대해 아람코는 장기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1분기에 가스 사업 확장과 글로벌 다운스트림 가치 사슬 성장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달성했으며, 주주들을 위한 지속적 가치 창출에 변함없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힘

#### ○ RSG, 관광부문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sup>(Arab News 5.8)</sup>

- Red Sea Global (RSG)이 관광부문 활성화를 위해 여행사인 Almosafer와 협약을 체결했으며, 홍해와 Amaala 등의 관광 개발 및 서비스를 선보이며 홍보할 예정임
- 총 79개 호텔이 들어설 홍해와 Amaala 지역은 2030년까지 사우디 경제에 연 330억 리얄(약 87.9억 불) 규모를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사우디의 국가 관광 전략은 2030년까지 1.5억명의 방문객 유치를 통해 관광 분야에서 16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임
- 최근 RSG는 Saudia와 협약을 맺고 자사 직원들의 독점 선불할인과 기업 특별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함

### ④ 건설시장 동향

#### ○ 프린스 파이살 빈 파드 스타디움 입찰 공고<sup>(MEED, 4.22)</sup>

- 사우디의 Ministry of Sports는 리야드의 프린스 파이살 빈 파드 경기장 확장 프로젝트의 입찰을 공고함
- 4.8일에 RFP를 공고했으며, 6.14일에 입찰 마감할 예정임
- 현재 경기장의 수용인원은 22,188석이며, 약 45,000석까지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 ○ Cayan Group, 네움에 힐튼호텔 개발 추진<sup>(MEED, 4.23)</sup>

- 로컬 부동산 개발사인 Cayan Group은 네움에 Hampton by Hilton hotel 개발을 추진할 예정
- 총 201개 객실 규모의 동 호텔은 Cayan Group이 자금을 전액 출자할 예정이며, 2025년 개장을 목표로 함
- 지난 3월 힐튼은 Cayan Group과 협력하여 타북에 첫 번째 Hampton by Hilton Sharma hotel을 오픈했으며, 객실 규모는 201개 객실로 완공까지 약 1년이 소요됨
- 동 호텔은 네움베이공항에서 20분 거리에 소재하며, Sharma 지역을 방문하는 사절단과 비즈니스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
- 시공은 중국 Beijing Emirates Group의 현지법인인 BEC Arabia가 맡았으며, 이집트의 Hussein Sabbour Consulting Bureau가 프로젝트 컨설턴트로 참여함.
- Hampton by Hilton Sharma hotel은 힐튼이 사우디 내에서 운영하는 호텔의 18번째 포트폴리오로 포함됐으며, 힐튼은 60개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계획하고 있음.

○ **네움, FCC 컨소, 더 스파인 터널 25% 완공**<sup>(MEED, 4.23)</sup>

- 스페인의 FCC Construction가 리딩으로 참여한 컨소시엄\*은 참여한 네움 더 스파인 터널의 25%를 완공했다고 발표함
- \* 동 컨소시엄은 중국의 China State Construction Engineering Corporation와 로컬 Shihb Al Jazira Contracting Company가 참여
- FCC는 SNS를 통해 월 1.2km를 굴착하는 속도로 진행중이며, 총 8.7km의 터널을 굴착하고 있다고 밝힘
- 더 스파인의 산악 터널 구간은 FCC 컨소시엄이 Lots 2, 3를 27억불에 수주해 시공중이며,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Lots 4, 5를 18억불에 수주해 시공중

○ **네움, 양수발전 프로젝트 1단계 RFQ 공고**<sup>(MEED, 4.23)</sup>

- Enowa는 양수발전(Pumped hydropower storage, PHS) 네트워크 1단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RFQ를 공고했으며, 5월말 마감 예정
- 지난 1월 디벨로퍼 대상으로 EOI를 접수함

- 동 프로젝트 1단계의 설치용량은 2,200MW이며, 저장용량은 23.1GWh로 약 11시간 예상
- 공사 기간을 제외하고 40년간 BOOT 모델로 추진되며, 예상 CAPEX는 27억불 규모임

○ **디리야, Zallal Bujairi 건설 진행**<sup>(MEED, 4.24)</sup>

- Diriyah Company가 부자이리(Bujairi) 디스트릭트에서 추진하는 오피스 및 상업시설을 포함하는 첫번째 프로젝트인 Zallal 프로젝트가 상당한 진척이 됐다고 발표함
- 동 프로젝트는 로컬의 Nesma & Partners가 시공하고, 미국의 KEO가 PMC를 담당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임
- Zallal 프로젝트는 디리야 게이트 프로젝트 내 6,000㎡ 면적의 오피스 2개동과 8,000㎡ 면적의 12개의 리테일이 포함되어 있음

○ **아미랄 코젠 금융종결 임박**<sup>(MEED, 4.24)</sup>

- 아미랄 코젠의 디벨로퍼는 금년 2분기 내 프로젝트 금융종결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됨
- 발주처인 Satorp는 지난 3월 UAE의 Taqa(51%)와 일본의 Jera(49%)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전력 및 증기 구매계약을 체결함
- 동 프로젝트는 향후 25년간 BOO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상호 합의에 따라 5년 연장 가능함
- 디벨로퍼는 O&M까지 수행할 예정으로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은 약 475MW의 발전용량과 첨단 복합화력 가스 연소 기술을 통해 시간당 약 452톤의 증기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
- 한편, EPC는 삼성물산이 맡을 예정임

○ **주베일 IWP 4 & 6 RFP 연장**<sup>(MEED, 4.26)</sup>

- SWPC는 PQ를 통과한 9개 기업 및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RFP 마감기한을 2개월 연장 통보함
- 동 프로젝트는 PQ 결과 발표 후 4개월이 지난 금년 1월 RFP 마감기한을 4.30일로 공고했으나, 이번 2개월 연장으로 6.30일 마감 예정임
- 동 IWP 플랜트는 역삼투 기술을 사용해 600,000 m<sup>3</sup>/day의 해수를

- 담수 처리할 예정
- 로컬기업 16개사를 포함해 총 35개사가 동 프로젝트에 EoI를 제출했으며, PQ 통과 업체들은 다음과 같음
  - Abu Dhabi National Energy Company (Taqa)
  - Acciona (스페인)
  - Acwa Power (로컬)
  - Ajlan & Bros(로컬)/Rawafid Industrial Company(로컬)
  - Al-Jomaih Energy Water Company (로컬)/Sogex Oman Company(로컬)
  - GS Inima (스페인/한국)
  - International Power (Engie, 프랑스)
  - Marubeni Corporation (일본)
  - Power&Water Utility Company for Jubail&Yanbu (Marafiq)
- 해당 플랜트는 주베일 산업도시에서 남쪽으로 18km 떨어진 곳에 위치할 예정이며, 주베일 1단계, 2단계, 3A 및 3B IWP 플랜트 인근에 건설될 예정
- 이미 사우디에서 추진중인 SWRO IWP 계약들과 마찬가지로, 낙찰자는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향후 25년간 WPA에 따라 SWPC에 용수를 판매하게 됨
- SWPC는 동 프로젝트 관련 자문사로 재무는 네덜란드의 KPMG Professional Services, 법률은 영국의 Eversheds Sutherland, 기술은 캐나다의 WSP를 선정함.
- 또한, UAE의 Future Water & Power Consulting을 입찰 지원과 현장조사 용역사로 선정함
- SWPC는 사우디에서 Rabigh 3 & 4, Shuqiy 3, Yanbu 4(Ar-Rayis 1), Jubail 3A, 3B 등 6개 IWP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고, Shuaibah 3 SWRO 계약을 2022년에 체결해 총 7개의 IWP를 통해 총 330만 cm/d의 용량을 갖추고 있음
- 5월 말 Master Gas System 프로젝트 계약식 예정<sup>(MEED, 4.29)</sup>
  - 아람코는 5.30일 Master Gas System network (MGS-3)의 확장 패키지 수주업체와 공식 계약식을 가질 예정
  - MEED는 지난 2월 아람코가 총 100억불 규모의 MGS-3 메가 프로젝트 17개 EPC 패키지 중 15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음

- 이번에 선정된 업체 중 중국의 CPECC와 Sepco는 이미 각 패키지에 대한 LOA를 아람코로부터 수령함
- CPECC는 패키지 1\*을 17억불에 수주했으며, 동 사가 사우디에서 수주한 계약금액 중 최대 규모로 효력일은 4.24일부터이고, 2027년 말 완공 예정임
  - \* 공사범위는 MGS의 동서 파이프라인을 따라 설치되어 있는 부스터 가스 컴프레션 스테이션(BGCS) 1, 3, 5에 8개의 신규 컴프레션 트레인을 설치하여 업그레이드하는 공사로 BGCS-1 3개, BGCS-3 2개, BGCS-5 3개가 추가 설치될 예정임. 그 외 동서 펌프 스테이션(EWPS) 1과 5에 숙소 확장 공사도 포함됨
- Sepco는 패키지 2\*\*를 수주했으며, 공사기간이 48개월로 알려짐
  - \* 공사범위는 동서 파이프라인 서편에 있는 EWPS-10 근처에 신규로 BGCS-10 시공하며, 10개의 컴프레션 트레인이 설치될 예정임. 그 외 EWPS-10의 숙소 확장 공사도 포함됨.
- 네옴, 27억불 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 확보<sup>(MEED, 4.29)</sup>
  - 네옴은 프로젝트의 단기자금조달을 위해 27억불 규모의 RCF (Revolving credit facility)를 확보했다고 발표함
  - 이번 파이낸싱에는 Saudi National Bank, Riyadh Bank, Saudi Awwal Bank, Al Rajhi Banking and Investment Corporation, Alinma Bank, Arab National Bank, Bank Albilad, The Saudi Investment Bank, Bank AlJazira 등 총 9개 로컬은행이 참여함
  - 네옴 CEO는 네옴 프로젝트 진행에 속도가 붙으면서 사우디 주요 금융기관이 지원하는 신규 여신(New credit facility)이 네옴의 광범위한 자금조달 전략과 맞았다고 언급하며, 향후에도 사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자금조달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함
  - 이번 신규 파이낸싱 계약은 지난해 3월 85억불 규모의 네옴 그린 수소 프로젝트를 위해 은행 및 대출기관과 체결한 계약을 기반으로 함
- 네옴 관련 외신보도 부인<sup>(CNBC, 4.29)</sup>
  - 사우디 재무부 장관은 4.29일 리야드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 (WEF) 특별회의에서 최근 네옴 프로젝트가 일부 계획을 축소한다는 외신보도를 부인하고, 네옴의 모든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고 있음을 언급함
  - 4월 초 외신에서는 2030년까지 사막을 가로질러 105마일(170km)의

- 유리벽 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라는 더 라인 프로젝트가 당초 계획보다 98.6% 축소되어 그때까지 건설될 구간이 1.5마일(2.4km)에 불과할 것이라 보도되었으며, Bloomberg에서는 이에 대해 아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사우디 정부가 2030년까지 더 라인에 150만명 거주를 목표로했으나 계획을 30만명으로 축소했다고 보도함
  - 이와 같은 계획 축소 보도는 네옴의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사우디의 국부펀드인 PIF가 아직 네옴의 2024년도 예산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함께 보도됨
  - 이에 동 장관은 네옴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최상의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임을 강조하고, 시장상황과 투자자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할 것이라 언급함
  - 또한, 네옴 프로젝트 규모에는 변화가 없으며,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 강조함
  - 외신보도된 일정과 추진구간 변경이 민간투자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프로젝트의 필요와 수익에 맞는 결정을 내릴 것이며, 네옴의 모든 개발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함
- 아랍코, Zuluf 해상 프로젝트 입찰 취소<sup>(MEED, 4.30)</sup>
- 아랍코가 Zuluf 유전 및 가스전의 여러 구조물 관련 EPCI 입찰을 취소함
  - 취소된 입찰은 CRPO(Contracts Release and Purchase Order) 시스템 134번에 해당되며, LTA Pool에 속한 업체들은 지난해 12.17일까지 입찰을 제출하였음
  - CRPO 134의 규모는 약 14억불로 예상되었음
  - 아랍코는 4.4일 입찰을 제출한 업체들에게 CRPO 134 입찰 취소 공문을 발송했으며, 수 주 내에 Zuluf 유전의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포함한 신규 프로젝트 입찰을 재공고할 것이라 덧붙인 것으로 전해짐
  - CRPO 134의 작업 범위에는 Zuluf 유전에서 다음 구조의 EPCI가 포함됨
    - 슬립오버 재킷 8개 설치
    - 슬립오버 데크 8개 설치

- 생산 데크 모듈 철거 및 설치
  - 2개의 모듈형 재킷 플랫폼과 보조 플랫폼 업그레이드
  - 70km 해저 케이블 11개 설치
  - 15km인 8개의 플렉서블 파이프라인과 5km의 리지드 파이프라인을 포함한 20km의 해저 파이프라인 설치
- 한편, MEED는 아랍코가 최근 몇 주 동안 해상 유전 및 가스전 업그레이드에 대한 신규 입찰을 LTA 업체들로부터 받았다고 보도함
  - LTA 업체들은 3월 CRPO 131, 132, 139, 142, 143에 대한 입찰을 제출했으며, 4월 Marjan 해상 유전 및 가스전의 주요 구조물 EPCI와 관련된 18억불 규모의 CRPO 130 입찰을 제출함. 또한, 5월 초에 있을 Karan 유전 및 가스전 인프라 업그레이드 관련 CRPO 144에 대한 입찰 제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이러한 총 7개의 신규 입찰 활동은 지난 1.30일 사우디 에너지부가 아랍코에 석유 생산량을 일 1,200만 배럴에서 2027년까지 1,300배럴로 확장하려던 계획을 중단하라는 지시에 따라 아랍코가 15개의 해상 유전 업그레이드 입찰을 보류한다는 지침을 내린 이후 진행되고 있음
- 사우디 원전 프로젝트 입찰 연기<sup>(MEED, 센터 자체조사, 5.2)</sup>
- MEED는 소식통을 인용해 사우디가 에너지 다각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대형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의 입찰이 구체적인 일정통보 없이 연기됐다고 보도함
  - 당초 입찰 마감일은 4.30일이었으며, 센터 자체조사 결과 보도 이후 2개월 연장 통보한 것으로 확인됨
  - MEED는 이스라엘, 가자지구 등 기타 주변 국가의 지속적인 갈등이 프로젝트 일정을 지연시키는 주요인으로 예상했으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정치적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덧붙임
  - 앞서 보도된 바와 같이 입찰에 초청된 기업은 다음과 같음
    - China National Nuclear Corporation (중국)
    - 한국전력공사 (한국)
    - Rosatom (러시아)
    - EDF Group (프랑스)

- 사우디 최초의 원전 프로젝트는 2.8GW 규모로 위치는 UAE와 카타르 국경 근처 해안의 Khor Duwaiheen로 예정되어있으며, 사우디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2022.3월 Duwaiheen Nuclear Energy Company를 설립함
- 지난해 진행된 PMC 입찰에는 영국의 Atkins, 호주의 Worley, 프랑스의 Assystems 등이 참여했으며, 이 중 2개사는 사우디 원자력 에너지 프로젝트 관련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사우디는 산업 전략의 일환으로 우라늄 농축 계획과 함께 원전 프로젝트 추진을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스라엘과 사우디 간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우라늄 농축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
-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최근 갈등이 시작되기 1개월 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고위관계자는 사우디 및 미국 고위관계자와의 협상을 위해 리야드를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짐
- 지난해 9월 BBC 보도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사우디 아라비아, 미국간의 3자 협약이 성사될 경우에 대비해 점령된 서안 지구에 대한 수억 달러와 더 많은 통제권을 놓고 협상 중이었음
- 10.14일 사우디는 공식적으로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히며, 관계 정상화에 관한 회담을 중단한 바 있음

○ **네옴, 더 라인 마스터플랜 1단계 현황 공개** (Saudi Gazette, Youtube 등, 5.6)

- 네옴은 최근 동영상 통해 더 라인의 진행상황 보여주며, 마스터플랜 1단계가 구체화되고 있음을 공개함
- 영상에서는 수직 도시가 발전해나가고 있으며, 마스터플랜 1단계가 구체화되는 모습을 지켜봐라라는 캡션과 함께 수백만㎡ 이상의 세계적인 규모의 토공사업을 진행하고 260대 이상의 드릴링머신과 2,000대의 덤프트럭 등을 동원해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줌

○ **Qiddiya, 아쿠아라비아 & 식스플래그 등 내년 개장** (AGBI, 5.7)

- 5.6일 두바이에서 개최된 Arabian Travel Market에서 사우디 기가 프로젝트의 일환인 Qiddiya 프로젝트 개발사는 사우디 최초의 워터파크인

아쿠아라비아가 내년 개장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동 시설은 22개의 놀이기구 중 세계 최대 높이의 워터코스터와 워터 슬라이드 등 4개의 세계 기록 시설을 갖추고, 수중 놀이기구, 파도 풀, 서핑풀 등을 비롯하여, 2034년 아시안 게임 종목인 급류카약 훈련 및 경기장도 포함됨
- 아쿠아라비아는 Qiddiya Investment Company가 식스플래그 놀이공원과 함께 건설중이며, 두 시설 모두 비전 2030의 일환으로 내년에 개장할 예정임
- 워터파크의 사업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부동산컨설팅회사 Knight Frank는 동 프로젝트의 가치를 98억불로 평가함
- 한편, 아쿠아라비아와 식스플래그는 이 지역에 총 1만개의 직간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됨
- 북미 이외 지역에 최초로 건설되는 식스플래그 테마파크는 Formula One 레이스 트랙과 세계에서 가장 높고 빠른 롤러코스터를 포함해 5개의 세계 기록 놀이기구를 포함하고 있음
- Qiddiya Investment Company측은 아쿠아라비아 개장 발표가 해당 시티의 엔터테인먼트, 관광, 스포츠 부문에 중요한 이정표라 밝힘

○ **네옴, 럭셔리 마리나 커뮤니티 Jaumur 런칭 발표** (Saudi gazette, 5.8)

- 네옴은 아카바만 해안에서 가장 큰 규모의 럭셔리 마리나 커뮤니티가 될 Jaumur 런칭을 발표함
- 동 프로젝트는 거주 적합성과 최고 수준의 라이프 스타일을 충족하도록 설계됐으며, 마리나 주변에 6,000명 이상의 주민을 위한 독점 주거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500호의 마리나 아파트와 700호의 고급 빌라 등이 들어설 예정임. 각 빌라는 해안 접근과 전용 계류장을 제공하고, 2개의 호텔에는 스위트룸을 포함해 총 350개의 객실과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
- Jaumur의 중심에는 요트 마리나를 보호하고 멋스럽게 장식된 1.5km의 선착장이 들어설 예정이며, 마리나 산책로에는 연중 예술행사, 시그니처 상업시설, 글로벌 레스토랑 등을 갖춰 엔터테인먼트, 레저 및 문화 등 경험을 제공할 예정
- 또한, 혁신과 교육 부문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네옴을 해양학 연구의

선도적인 센터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해양 발전 및 보존에 중점을 두는 최첨단 심해연구센터와 다양한 교수진과 선별된 유학생에게 종합 교육을 제공하는 최고 수준의 국제 기숙학교의 본거지를 설립할 예정이다

- 깊고 푸른 아카바만을 배경으로 물과 황금빛 모래가 만나는 건축물은 고급 여행지의 느낌을 주며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역동적인 커뮤니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함
- 이번 발표는 네옴이 아카바만 내에 여러 관광지를 소개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임

○ **주재국 PPP 시장동향 및 전문가 의견 보도** (MEED, 5.7)

- 사우디는 홍해 및 아말라(Amaala) 개발, 네옴의 직원 숙소 프로젝트 등을 PPP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이를 기가 프로젝트들의 자금조달 및 운영 효율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음
- 홍해와 아말라 프로젝트의 경우, 재생 에너지 발전, 냉각, 담수화 및 수처리, 폐기물 재활용 등 그린필드 프로젝트를 유틸리티로 통합함으로써 EPC, 디벨로퍼, 투자자 모두에게 유의미함
- 유틸리티 서비스 제공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발주처가 여러 개발사 및 업체들과의 거래 대신 선택된 개발사와만 거래하면 되고, 선택된 개발사는 EPC와 O&M 업체들을 관리하면 됨. 복잡한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긴 공기와 품질이 핵심이므로 더욱 중요함
- 만약 세부 프로젝트를 개별 계약으로 추진한다면, 더 큰 예산이 소요될 수 있어 비용 및 운영 효율 측면에서 유리함
- 하지만, 기가 프로젝트를 PPP 방식으로 추진 시 도전과제도 상존하며 이는 타이트한 일정과 실행단계의 예산 및 유동성 등이 문제임
- 네옴은 재생 에너지 및 담수 프로젝트에 대해 전통적인 방식과 PPP 방식을 모두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사우디 기가 프로젝트들은 PPP 조달기관인 NCP를 통해 다양한 부처에서 계획 중인 200건 이상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입찰중에 있음
- NCP의 파이프라인은 공항, 항만, 도로, 의료 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주재국의 예산 상황에 따라 일부 기가 프로젝트의 조달 모델은 변경될 수 있으며, 완공 시점도 2030년에서 2040년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음

- 전문가들은 로컬 은행의 전반적인 유동성과 증가하는 PPP 파이프라인에 대한 국제 금융기관들의 프로젝트 참여 의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함
- 또한, 로컬 은행들의 유동성 수준에 대한 확인은 쉽지 않지만, 주재국 내 프로젝트 진행률을 통해 예정 파이낸싱이 정상 진행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며, 로컬은행들은 국제금융기관 및 투자자들의 지원 등을 통해 프로젝트의 유동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함. 향후 효율적이고 안전한 통화정책이 사우디 PPP시장에 국제금융기관 유치하는데 핵심이라고 덧붙임
- 국제 대출시장은 부채 장부를 다양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국제 대출기관과 개발투자펀드의 참여는 공통적 특징이며, PPP 프로젝트의 복잡성과 자본집약적 특성에 따라 국내외 대출기관들의 신디케이션이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함
- 대출기관들은 PPP 프로젝트보다 기가 프로젝트 및 PIF가 계획한 프로젝트 등과 같이 더 수익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 있으며, 자금조달 측면에서 시장 역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NCP의 PPP 프로그램이 타 시장에 비해 잠재적 위험성이 높다고 경고함
- 한편, 일부 PPP 전문가는 기가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에서 PPP 프로젝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며, 예산 변경이나 기가 프로젝트의 일부를 PPP 모델로 변경하는 가능성은 여전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함. 하지만, 개발사들이 PPP 프로젝트보다 기가 프로젝트 참여를 선호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언급함
- 기가 프로젝트 중 PPP 프로젝트의 최종 지불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재정적 여유가 큰 참여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급 보호 및 신용 지원의 보조 수단이 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임